

수도경찰청 형사들은 김수재씨가 살해되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기관에 비밀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두뇌집단인 21세기연구소의 소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살인사건을 보고한 사람은 김수재씨의 아름다운 약혼녀 진혜진씨였다. 그녀는 서울교외 신도시에 있는 김수재씨의 집을 찾았을 때 그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체없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8월12일 하오 6시45분이었다.

김수재씨의 시체는 서재에 있었다. 그는 이집 부엌에서 나온 식도로 가슴을 찢린 상처로 사망했다. 그의 주머니에서 현금과 카드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하고 DNA(유전물질)분석을 하기 위해 피의 샘플도 수거했다. 경찰은 또 시체옆에서 아마도 김수재씨가 든 마지막 식사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쯤 먹다 남은 고기샌드위치도 발견했다. 이웃의 탐문수사와 희생자의 배경조사를 한 결과 여러 사람의 용의자들이 떠올랐다. 그중에는 약혼녀인 진혜진씨, 진혜진씨가 김수재씨를

만나기 전의 약혼자였던 박찬달씨, 연구소에서 김수재씨에게 해고당한 이만재씨 그리고 김수재씨가 연구소소장직을 물려받은 안기수씨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경찰은 8월12일 김수재씨택을 방문했던 두사람을 찾아냈다. 한 사람은 텔레비전 수리공인 정수선씨였고 다른 한사람은 이웃 드라이클리닝사의 배달원인 차배인씨였다. 그러나 곧 정수선씨는 회사의 기록에서 그가 김수재씨택을 방문한 것은 8월12일이 아닌 8월11일이었다는 사실을 제시

했다. 그러나 그의 지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는 심문을 받았다. 한 증인은 제3의 방문자가 있었다고 보고했으나 인상착의가 모호하고 행적을 알 수가 없었다. 살인 무기에는 지문이 없었다. 서재에서 발견된 다른 지문은 5~6명의 혐의자들과 부합되었으나 박찬달씨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다섯사람은 지문을 남긴데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진혜진씨는 오찬을 함께 하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수재씨택을 방문했다. 이것은 김수재씨가 비망록에도 기록하고 있었다. 이만재씨는 살인이 일어나기 2일전

## 함께 푸는 미스터리<8>

# 약혼남의 시체

안기수씨와 함께 이 서재에서 김수재씨와 술을 나누었다. 이 두사람은 김수재씨가 자기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돕고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이것은 다른 소스로 확인되었다. 텔레비전수리공과 세탁배달원도 서재로 들어간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어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박찬달씨가 모습을 감추어 버렸고 같은 시기에 경찰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텔레비전 수리공

의 부인 구영자씨의 시체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8월 14일 밤 한강으로 굴러 떨어진 그녀의 차 바퀴옆에서 목이 부러진채로 발견되었다. 친구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

한편 DNA 시험결과가 돌아왔을 때 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 일부는 희생자인 김수재씨의 피와 부합되었으나 회수된 다른 피는 김수재씨의 피

가 아니었다. 경찰은 이 피가 김수재씨를 공격한 자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시점에서 6명의 용의자의 피를 모두 이 정체 불명의 샘플과 비교했다. 그러나 누구의 피도 김수재씨 서재에서 회수된 이 피와 부합되지 않았다. 여기서 경찰의 수사는 벽에 부딪치게 되었고 살인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김수재씨가 모기관과 비밀연구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기관은 그의 살인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김수재씨의 죽음이 그가 하던 일과 관련된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침해여부를 가려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 사람은 저명한 범죄학 전문가인 최율교수였다. 최교수는 21세기 연구소내에 배정받은 사무실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단순한 시험을 통해 입수한 또 하나의 증거를 발견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증거이기는 했으나 그것 하나로 살인범의 정체와 동기를 모두 밝힐 수 있다. 이 증거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누가 김수재씨를 살해했을까?

〈春堂人〉

〈해답은 83쪽〉



## 지택 서재서 피살된 21세기 연구소장 약혼녀의 전약혼자 등 6명 수사선상에 범죄전문가 최율교수가 밝힌 범인은...

는 타자수의 일자리에서 해고된 뒤 의기가 몹시 소침해 있었다. 그녀는 직업이 없으면 결혼생활을 청산할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며칠 뒤 박찬달씨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김수재씨의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수재씨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바로 전날 직업소개소에 전화를 걸어 개인비서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직업소개소는 면담차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